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ndigenosization in Buddhist Sculptures of the Tang Dynasty: Focusing on Yongmun Cave

## 당대 불교 조각에 나타난 토착화 특징 연구: 용문석굴(龙门石窟)을 중심으로

Li Jianzhong<sup>1</sup>

이건중<sup>1</sup>

<sup>1</sup> Student, Graduate School of Art, Dongguk University, Korea, [ljzdgu@naver.com](mailto:ljzdgu@naver.com)

**Abstract:** In the process of indigenosization of Buddhism, Yongmun Cave was created as a Buddhist sculpture from a pan-national business perspective through the combination of basic folk ideas, Taoist fresh ideas, and ruler power in line with national governa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at the characteristics of indige nousization in Buddhist sculptures during the Tang Dynasty were, focusing on Yongmun Ca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genosization of the time obtained through the analysis of Yongmun Cave are as follows. First, the adoption of realist artistic techniques made them respected through personalization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ublic. In other words, the more personalized the art of stone cave sculpture is, the easier it is for the public to accept and become more religious and indigenous. Second, they creatively expressed their own culture of stability and familiarity with the hope of guiding them to the Western paradise world. Third, Buddha sculptures at that time pursued a healthy and rich style that reflected the customs of the times. It was considered that the beauty and health selected in the real world could be reflected in the sculpture to praise the greatness of the Buddha.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tues of the previous dynasty that influenced the statues of Yongmun Stone Cave in the Tang Dynasty and the indigenosization of later generations.

**Keywords:** Yongmun Cave, Buddhism, Indigenosization, Sculpture, Tang Dynasty

**요약:** 당대의 용문석굴은 불교의 토착화 과정에서 민간사상, 도교의 신선사상, 그리고 국가 통치이념에 부합하는 통치자 권력과의 결합을 통해 범국가 사업적 관점에서 조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문석굴을 중심으로 당나라 시대 불교 조각에 나타난 토착화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용문석굴의 분석을 통해 얻은 당대 토착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주의 예술적 기법채택으로 대중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격화하여 존경받도록 하였다. 인격화가 될수록 석굴조각예술은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쉽고 더욱 많이 신앙화 되면서 토착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서방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기를 희망하는 기도 마음으로 안정미, 친근감이 있는 자신들만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표현하였다. 셋째, 당시 불상 조각은 시대 풍습을 반영한 건강하고 풍만한 스타일을 추구하였다. 현실

Received: August 06, 2023; 1<sup>st</sup> Review Result: September 08, 2023; 2<sup>nd</sup> Review Result: October 12, 2023  
Accepted: November 25, 2023

세계에서 선택한 아름다움과 건강의 전형이 조각품에 반영되어 부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당나라 시대 용문석굴의 조각상에 영향을 미친 이전 왕조시대 조각상에 대한 특징과 이후 세대의 토착화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핵심어:** 용문석굴, 불교, 토착화, 조각, 당대

## 1. 서론

용문석굴은 북위시기인 태화17년 49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 불교예술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당대에 이르러 불교가 성행하면서 대규모로 개축되었다. 근대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석굴 개착에 따른 연차적 시기, 불상에 관한 도상학적 해석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용문석굴은 중국의 전통, 사상, 문화와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문화가 융합되어 토착화된 특정 시기의 역사적인 문화예술의 산물이자, 인류문화적 관점에서 훌륭한 예술작품의 보고이다[1]. 용문석굴에는 북위에서 당대에 이르는 2,780여기의 조상기가 있다. 그 중 주목받고 있는 작품이 북위의 용문 20품으로 고양동에만 19품이 있으며, 불감의 명문과 많은 조성문을 통해 공양 주체, 조성 연대와 발원자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다[2]. 용문 석굴의 굴감(窟龕:동굴과 감실)에서 북위시대의 작품은 전체의 30%, 당대의 작품은 약 60% 를 차지한다[3].

이국적인 문화예술형태가 타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통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토착지의 고유한 지역 문화와 사회 풍조 및 미적 취향이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국 문화와 현지 문화는 상호 교류를 통해 변화되거나 흡수되어 토착화된다는[4]. 예를 들어 인도 불교 문화의 중국 내 확산은 외래문화가 수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불교는 기독교, 이슬람교 및 기타 외래종교보다 일찍 중국에 유입되어, 중국 문화와 융합을 이루면서 중화민족의 생활과 사고방식, 그리고 신앙 의식 등의 내부적인 구성요소가 되었으며, 중국 특색을 갖추면서 불교문화의 경관을 형성하게 되었다[5].

불교는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소개된 이후, 한나라 불교와 티베트 불교로 구분되며, 모두 장기적인 발전과정에서 고유한 문화 특성을 형성하였다. 특히 티베트 불교는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전 국민이 신앙하는 종교가 되면서 불교 지도자들은 절대적인 신성한 지위를 차지하였고, 대부분의 신도들 역시 불교에 대해 경건한 마음을 가졌다. 다음은 사회생활 전반에서 왕권과 신권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가운데 불교지도자들은 세속 생활에서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원은 불교의 중심지이자 정치 통치의 중심지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티베트 불교는 신비로운 색채가 강했다(尹雁华, 2018). 한나라의 불교는 인도불교와 중국문화와 결합되어 민족화 및 토착화된 종교로 중화민족문화의 중요부분이 되었으며 독립적으로 발전해나갔다[6]. 용문석굴의 조각상, 벽화에는 불교 인물들의 다양한 형상과 스토리가 생동감있게 묘사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조각예술은 끊임없는 전승을 거치면서 점차 완벽한 조각군을 형성하였다[7].

용문석굴, 둔황막고굴(敦煌莫高窟), 운강석굴(云冈石窟)은 중국의 3대 석굴로서, 중국불교의 발전상을 대표한다[4][6][8]. 우선, 긴 역사를 자랑하는 간쑤성 둔황막고굴의

조각예술과 벽화 문명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중국 불교 석굴예술을 대표하는 사원의 하나가 되었다. 다음으로 산시성 운강석굴은 석조 불교 석굴 예술의 중국화의 시작을 대표한다. 마지막으로 용문석굴은 전승 관점에서 중원에 위치하고 있는 운강석굴과 그 맥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중국 정치문화의 중심에 서있었다. 또한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관점에서 앞의 두 석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교의 토착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용문석굴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용문석굴의 불상과 탑, 조각상 등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만, 중국의 전통문화와 예술적 관점에서 토착화 의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용문석굴을 중심으로 당대 불교 조각에 나타난 토착화 특징을 탐구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문석굴의 역사적 조성과정과 석굴양식을 알아본다. 둘째, 당나라의 용문석굴 예술을 단계적으로 알아본다. 셋째, 용문석굴의 토착화과정을 살펴본다. 본 연구가 당대 용문석굴의 조각상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별 조각상의 특징적 요소 발굴 및 이후 세대의 토착화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 용문석굴의 조성과 석굴양식

### 2.1 북위 시대

중국 불교는 북위 시대에 대부분 완성되었다. 이 시기 불교의 토착화과정에서 불교탄압 사건을 통해 새로운 범국가적 불교관과 불교의 존립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폐불(廢佛)사건은 불교가 중국사회 정착과정에서 전통사상과 충돌한 사건으로, 이민족 왕조들의 중국정착과 관련이 있다. 폐불사건 이후 북위에서 불교와 황실이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황실은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던 정통성 문제를 불교를 통해 새롭게 확립하였고 물질, 제도면에서 불교를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보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교탄압행위는 정치적 관점에서는 유교적 지배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고, 문화적 관점에서는 도교 문화의 발전을 시도한 것이다[4].

북위 효문제(孝文帝)는 태화(太和) 18년(494년)에 북방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선비족과 한족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수도를 평성(平城, 지금의 산시성 대동시)에서 낙양으로 천도하였다. 동시에 이민족들이 한족의 언어·문화·풍속·습관에 융화되도록 한화개혁(漢化改革)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용문산을 석굴 불교성지로 선택하였는데, 북제(北齊), 수, 당, 송 등 왕조를 거치면서 남북 1km에 달하는 2,300여개의 굴감, 10만여 개 조각상, 2,800여 개 조상비의 석굴유적이 형성되었다[6].

용문석굴의 북위 시기 조각상은 전체 조각상의 약 33%로 낙양천도 이후 효문, 선무, 효명제 기간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7]. 이 시기 용문석굴의 대규모 증축은 중국 북부지역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고, 지배계급들의 통치 이념이 되었다. 북위 시기 조성된 석굴은 고양동(古陽洞), 빈양삼동(賓陽三洞), 연화동(蓮花洞), 화소동(火燒洞), 황보공굴(皇甫公窟), 약방동(藥方洞), 위자동(魏字洞), 당자동(唐字洞), 조객사동(趙客師洞), 보태동(普泰洞), 자향굴(慈香窟), 노동(路洞) 등이 있다. 그러나 북위 말기 시국이 혼란해지면서 불교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용문석굴의 조각상도 영향을 받아 화소동, 조객사동, 당자동, 약방동 등의 석굴은 폐허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북위 멸망 때까지 대형 굴과 절벽의 공간에 작은 감을 뚫어 복을 기원하였고, 동위, 서위, 북제 때 노동, 당자동, 고양동, 약방동 등 석굴과 위자동 밖에서만 조금씩 개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석굴은 석굴사원의 개착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위 시기 석굴의 개착 형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3단계로 구분되며[6][표1]과 같다. 첫째, 전기는 운강기로 북위가 개국되면서 불교 부흥운동에 따라 본격적으로 대규모 석굴사원들이 조성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때 개착된 석굴은 대동운강석굴, 돈황막고굴, 천불산석굴, 병영사석굴, 천수맥적산, 하서주랑(河西走廊)의 초기석굴 등이 있다. 둘째, 중기로 용문현기라고도 불리운다. 이때 태화17년(493) 효문제는 낙양천도 이후에 동부지역 용문석굴을 개착하였는데 운강석굴의 특징을 계승해나가면서 발전을 이루었다. 이후 낙양을 중심으로 주변에 여러 개 석굴이 개착되었는데, 공현석굴이 용문석굴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특히 이 시기는 북위 석굴과 불상 조영 등에서 중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시기로서 운강석굴의 북위양식이 낙양천도를 통해 중화양식의 영향을 받아 정착되어 가는 시기였다. 이후 이러한 변화는 동서위 및 측천무후에 의해 당대 불교예술에도 전승되면서 중국 석굴 예술의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셋째, 수나라 통일 전후 시기로 수미산석굴, 향당산석굴 그리고 천룡산석굴이 있다. 그러나 이때 국가 차원의 대형 석굴사원 조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력가와 대중을 중심으로 소규모 굴사원들이 개착되었다 [6][9].

[표 1] 북위시기 석굴

[Table 1] Stone Cave in the Northern Wei period

전기(운강시기)	천불산석굴, 병영사석굴, 돈황막고굴, 운강석굴, 천수맥적산석굴, 하서주랑의 초기석굴
중기(용문공현기)	용문석굴, 공현석굴
말기(수 통일기)	고원 수미산석굴, 향당산과 천룡산 석굴

## 2.2 당조시대

당조는 중국 불교의 번성기로서 남북 불교도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기존의 여러 불교학설을 집대성하였다. 또한 중국화된 불교 창시를 위해 노력하였고, 불교 조각예술에서도 신선함과 활력이 다분했다. 앞선 수나라도 불교를 옹호했지만, 용문석굴 조각도 매우 적었고 대표성도 없는 등 그 역사가 짧은 반면, 당조 시기는 용문석굴의 두 번째 대규모 개착 시기로 통치자들은 이와 같은 불교 정비를 통해 정치에 종속시키고 유교 사상과의 결합을 시도하였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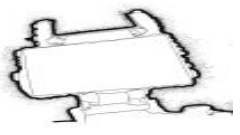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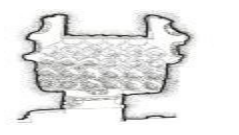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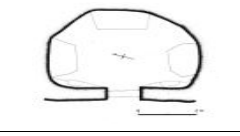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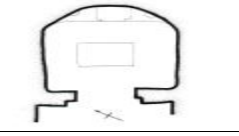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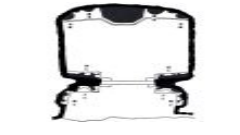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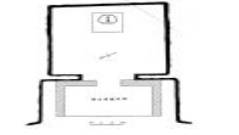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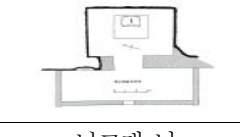

현재 용문문화박물관에 용문석굴 굴감 2,100여개 중 당대 작품이 약 60%인 1,260여개로 기록되어 있다. 최초의 불감은 637년 낙주향성노인조상감(洛州鄉城老人造像龕)이고, 마지막 불감은 791년의 구고관세음보살감(救苦觀世音菩薩龕)으로, 당대 용문석굴과 불상의 황금기는 630년부터 755년까지 약 125년 간 지속되었다[7][9]. 또한 당대 석굴양식은 북위 시기와 비슷한 원형원정(圓形圓頂)형식과 방형평정(方形平頂)형식으로[표2], 전자는 제발동(題跋洞), 빈양남북동(賓陽南北洞), 퇴고대중.북동(檀鼓臺中.北洞)이며, 후자는 경천동(敬善寺洞), 쌍동(雙洞), 만불동(萬佛洞), 사자동(獅子洞), 간경사동(看經寺洞) 등이 있다.

당대 용문석굴 조각예술은 3단계로 구분한다[4]. 제1단계는 당조 태종(太宗)시기부터 고종(高宗)시기로 주요 대형석굴은 정관(貞觀)15년(641년)을 전후하여 완성되었다. 빈양(賓陽) 남북동과 후에 개착된 잠계사(潛溪寺)와 경선사(敬善寺)지역에 분포된 중소형 석굴이 여기에 속한다. 제2단계는 측천무후(武則天)친정시기부터 무주(武周)시기로 대중형 석굴이 많으며, 대표적인 석굴은 측천무후(武則天)원년 675년에 완공된 봉선사(奉先寺)의

대로사나상감(大盧舍那像龕), 함형(咸亨)4년(673년)에 완공된 혜간동(惠簡洞), 영릉(永隆)원년(680년)에 완공된 만불동(萬佛洞)이 있다. 이외에 팔작사동(八作司洞), 용화사동(龍華寺洞), 북시채백행정토당(北市彩帛行淨土堂), 고평군왕동(高平郡王洞), 이연화동(二蓮花洞)등이 있다. 제3단계는 중종(中宗) 신룡(神龍)시기부터 덕종(德宗) 정원(貞元)연간(705-804)으로, 조각상의 규모나 수량 등 면에서 이전에 훨씬 못 미친다. 그 중 극남동(極南洞)은 중종(中宗) 신룡(神龍)2년에서 경룡(景龍) 4년(706-710)간 진행되는 큰 공사였다. 그리고 경운(景云) 원년(710년) 토화라승보룡상감(吐火羅僧寶隆像龕)과 정원(貞元)7년(791년) 구고관세음보살석상(救苦觀世音菩薩石像)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용문석굴은 북위와 당대를 지나 [표 3] 송나라,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에서는 작은 조각상 몇개와 이름만 남는 등 규모가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표 2] 당대 석굴과 유형별 특성

[Table 2] Stone Caves and Characteristics by Type during the Tang Dynasty

분류	평면		석굴과 유형별 특성
원형원정 [圓形圓頂]	 빈양동 북	 빈양동 남	제발동(題跋洞), 빈양남북동(賓陽南北洞), 너고대중·북동(擂鼓臺中·北洞) 등 원형원정(圓形圓頂)으로 용문석굴 대부분 북위 형식을 반영한 방식으로 뒷벽에 본존을 배치하였음
	 너고대 중	 너고대 북	
방형평정 [方形平頂]	 만불동	 간경사동	경선사동 [敬善寺洞], 쌍동 [雙洞], 만불동 [萬佛洞], 사자동 [師者洞], 간경동 [看經洞] -매치형대가 정형화되었고, 주로 주불과 협시, 만불상의 소불을 조각함.
	 너고대 남	 봉선사동	

출처: [8], 46.

[표 3] 북위와 당대 석굴

[Table 3] Stone Cave during the Northern Wei and Tang Dynasty

북위	곡양동 [谷陽洞], 고양동 [古陽洞], 빈양동 영암사 [賓陽洞 靈巖寺], 연화동 [蓮花洞], 빈양중동 [賓陽 中洞], 화소동 [火燒洞], 위자동 [魏字洞], 자향동 [慈香洞], 보태동 [普泰洞], 황보동 [皇甫洞], 노동 [路洞], 약방동 [藥房洞], 당자동 [唐字洞], 조객사동 [趙客師洞], 변주동 [卞州洞]
당대	빈양 남동(賓陽 南洞), 빈양 북동(賓陽 北洞), 잠계사동(潛溪寺洞), 경선사동(敬善寺洞), 쌍요(雙窯), 혜간동(惠簡洞), 봉선사동(奉先寺洞), 만불동(萬佛洞), 용화사동(龍華寺洞), 봉남동(奉南洞), 북시채백행정토당(北市彩帛行淨土堂), 극남동(極南洞), 팔작사동(八作司洞), 너고대삼동(擂鼓臺三洞), 고평군왕동(高平郡王洞), 간경사동(看經寺洞), 이연화동(二蓮花洞), 사안동(四雁洞)

### 3. 용문석굴의 토착화

#### 3.1 전통과 외래의 융합

용문석굴의 북위 시기 조각상은 운강석굴과도 그 맥을 같이 하지만, 전통적인 것을 토대로 외래 것을 융합한 새로운 민족 조각예술형식을 창조하였다. 다만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페르시아, 그리스 등의 예술적 영향을 받아 운강석굴보다 약화되었다[10]. 조각상의 형상과 구조에서 앞부분은 주로 운강석굴 중 담요(曇曜)말굽형 평면과 궁륭정(穹隆頂) 초노(草廬)형식을 계승하였는데 고양동(古阳洞), 빈양동(宾阳洞), 연화동(莲花洞), 화소동(火烧洞)등이 여기에 속한다. 뒷부분은 사각형 평면으로 궁륭정(窮隆頂: 연 꽃을 조각하여 만든 것)과 뒷벽에 높은 단을 만들고 단 위에 주상(主像)을 놓고 좌우 벽에 큰 감실을 뚫는 형태인 보태동(普泰洞)은 인도 불교 조각예술의 흔적이자 아열대 지방 사람들의 옷차림으로 오른쪽 어깨를 노출하는 편단우견으로 가슴을 드러냈다. 운강석굴 제17-20석굴 주불과 용문고양동(龙门古阳洞)층벽 상층 대감주존불(大龕主尊佛)복식이 편단우견식이다. 부처는 포의 밑 띠가 넓은 옷을 많이 입었고, 조밀한 옷 주름과 사각형 대좌는 치마를 덮거나 허리를 묶고 있다. 보살이 걸친 비단은 엇갈리게 늘어져 있고, 치맛 자락의 끝이 뾰족하였다[11]. 또한 하늘을 나는 선인(仙人)들의 동작은 우아하고 대부분 무릎을 꿇은 자세인데, 과일 쟁반이나 다양한 악기를 들고 있으며, 긴 치마가 뒤로 흘러내리듯하고 끝부분이 뾰족하다. 조각상 주제는 삼세불(三世佛)이다. 대규모 세속의 공양행렬도로서 빈양(宾阳)중동(中洞)의 제후예불도(帝后礼佛图)가 대표적이다[4]. 이외에도 자향굴(慈香窟) 부근의 석굴에도 규모가 작은 예불행렬 부조가 있으며 북위의 세속적 관료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다[8]. 조각 수법도 운강석굴의 직평도법(直平刀法)에서 용문석굴의 원도도법(圓刀刀法)으로 변화되었고, 조각예술면에서 운강은 어둡고 거칠었지만 용문은 우아하고 장엄하게 변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불상 조각예술이 중원문화와 융합하여 새롭게 토착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위 선비족들의 한족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0].

#### 3.2 조각예술의 중국 토착화 과정

석굴은 신도들의 불교 공양을 위한 전당 등 순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적 기능과 조각·조형 예술적 기능을 갖추었다. 중국의 불교 석굴 예술은 인도로부터 유입되어 토착화를 걸치면서 점차 중국 예술적 특성을 보여주었는데 지역적 특성이 강한 신장(新疆)의 고대 국가인 구자(龟兹)시기에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조각상 양식을 살펴보면 둥근 머리, 통통한 발, 사각형 얼굴, 높은 코와 얇은 입술이 특징이다. 또한 몸은 기하학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배꼽은 가늘고 좁으며 양어깨는 넓고 두껍게 표현되었다. 여성상의 경우 풍만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12] 이 시기 많은 조형예술의 표현에서 점차 한족의 예술적 풍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조 시대의 석굴 불상 조형이 중국화가 시작하면서, 남북조 문화의 결합과 더불어 중국 특색이 있는 중원의 전통적인 모델이 형성되었다. 북위 시기 용문 석굴은 대부분 불전굴(佛殿窟)로 만들어졌는데 사각형 평면 돔 지붕과 석굴 꼭대기 내부 장식이 격자무늬 평기 식이 아닌 통일구도로서 비천상, 연꽃 등으로 조각되었다. 빈양동문

앞면의 경우 한족의 문화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13].

황실 권세가들의 복을 기원하기 위해 만든 용문석굴 봉선사동 조각상은 많은 정치적 색채도 있지만 장엄하고 우아한 전통적 이념을 형상화한 것이다. 즉 조각 기법에서 중국의 회화 특징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고대 불교 석굴 예술이 점차 중국 예술적 스타일로 토착화된 것으로 발굴된지 1,500년이 지났지만 중원 왕조의 황실 풍격과 민족 특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예술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14]

### 3.3 석굴 예술의 인격화와 미적 심리의 부합

당조 시기 석굴 예술의 인격화는 대중의 심미적·심리적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장나이치엔, 2017). 당조 용문석굴의 조형은 불교사상의 원형을 넘어 불교를 숭상하지 않는 대중에게도 심미적 향수를 제공하였다. 대중들은 장엄한 대불상을 통해 넓은 마음과 풍부한 지혜를 갖춘 지자(智者) 형상을 생각할 수 있었고, 인자한 관음보살 조각상을 통해 심미적 여성상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석굴 예술은 불교 교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인생 가치를 갖도록 한다.

용문석굴의 부처 형상은 현실 생활과 관계가 있다. 부처 형상은 내면세계에 대한 이미지로 부처의 인자함과 친절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14]. 보통 보살상은 현실 생활에서의 여성미를 부각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기에, 대중은 보살상에 대한 위엄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보살상을 정숙하고 단정하며, 온화하고 친절하여 마치 궁녀같다고도 생각한다. 북위 효문제 태화시기 이후 제도를 바꾸면서 대부분의 불상은 중국인 얼굴로 변화하였으며, 당나라 이후 불상들의 인격화 정도가 더욱 상승하였다. 이는 당대 석굴 예술이 인도 불교 문화와의 융합과정을 끝내고, 자신만의 심미적인 특징을 갖춘 인격화가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석굴 조상(造像)에서는 관음보살을 중심으로 인격화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보살신앙은 중국 불교의 또다른 특징으로 대중들이 관음보살을 부처님보다 많이 숭배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의 공덕 및 법화경(法華經)이 민간에 널리 전파되면서 불교 교리는 대중들에게 깊숙하게 뿌리내렸고, 자비심(慈悲心)은 대승불교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장나이치엔, 2017). 따라서 관음보살의 경우 중화문화에서는 인간 정취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아름다움의 신으로 등극하였다. 당시 민간에서 보살형상을 제작할 시에 모델로서 금기시되었던 기녀(妓女) 또는 궁왜(宮娃: 궁녀)등 신분이 낮은 인간계를 대상으로 미인으로 변화시켰다.

## 4. 용문석굴의 토착화 특징

### 4.1 사실주의 기법을 통한 토착화 및 인격화 추구

용문석굴은 섬세한 사실주의 예술적 기법을 통해 대중들의 념원을 반영하고 토착화하면서 대중들로부터 경외를 자아냈다[15]. 용문 석굴조각의 예술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발한 예술적 발상으로 표현 주체와 피주체 간 관계를 고려하였고 사실적 처리로 대중화하였다. 예를 들어 용문석굴 봉선사동은 피라미드식 구도를 채택하였으며 주존 노사나불(盧舍那佛)을 중심으로 한 좌우 협시상은 상호 다른 모습으로 혼연일체가

되게 하였다.

둘째, 독특한 조형예술 기법과 조각예술에 대한 비교를 통해 주존상 머리 부분을 정교하게 조각하였고, 풍만하고 생동감 넘치는 불상은 대중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제자가섭(伽叶)상은 점잖은 노승의 모습이고, 아난(阿難)상은 경건하고 젊은 스님의 모습이다. 문수, 보현 두보살상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온화하고 우아한 귀부인의 모습이다. 천왕(天王)상은 벌어진 어깨, 둥근 허리, 찢어진 하체, 웅장한 상체로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과장된 예술기법을 사용하여 완전한 예술적 이미지를 구현하였다[13].

당대 석굴 예술은 사실주의적 토착화를 전제로 인격화되면서[11], 신앙의 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대중에게 쉽게 받아들여졌다. 이는 사상과 의식, 심미적 관념에서 토착화된 석굴 조각예술이 사실주의적 중국의 전통과 풍습에 따라서 대중들로부터 허락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즉, 불교 조각예술에 영향을 미쳤던 인도의 이국(異國)적 흔적이 당대에 토착화된 것이다. ‘토착화’는 외래문화와 현지문화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융합을 통해 정착화되는 과정으로 불교 조각예술에 생명력을 부여했다. 특히 당대의 불교 토착화 과정은 당시 사람들의 외래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으며, 외래문화에 대한 흡수, 혁신 등 토착화를 통해 중국 조각예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4.2 안정미와 친근감의 창조적 문화 표현

당대 불교 조각예술은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시대와는 달리 안정미와 친근감으로 그 시대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부처님의 형상은 인자하고 세속의 고난은 함께 나누는 이미지였다. 아난(阿難)상의 소박하고 온순하며 순진무구한 모습, 가섭(伽叶)상의 노련하고 침착하며 진지한 모습, 보살(菩薩)상의 현숙하고 수려한 모습, 그리고 천왕(天王)상의 위풍당당함과 용사의 맹렬함을 표현한 이미지 설정은 각자의 신분과 사회적 특징을 나타낸 것이며, 불교 교의에서 제도 설정까지 정치와 유교 사상이 통합된 문화를 외부로 표현한 것이다.

당대 불교예술의 규모와 기백은 전무후무하다. 당시 대외적으로는 국경 지역 개척, 4개 군영 설치, 국내적으로는 안정과 통일을 꾀했으며, 그 중 중외 무역발달로 인한 실크로드가 번영하면서 중외 문화의 대통합 국면을 가져왔다. 따라서 당대 외래문화에 대한 과감한 흡수와 창조혁신 정신은 당대 불교예술을 토착화함으로써 민족풍습의 하나로 변모시켰다. 수·당 불교가 민간에 전파되고 수용되면서 부처님 이미지도 인격적이고 세속화되었다. 당대 백성들은 태평성세로 인해 자신들의 내세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끝없는 역량을 지닌 부처님에게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기를 기도하는 등 자신의 염원과 소망을 기탁하기도 했다.

#### 4.3 시대상을 반영한 건강하고 풍만한 이미지

당대 용문석굴 조각상은 건강하고 풍만한 모습으로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즉 통통한 얼굴, 아름다운 자태, 미소를 머금은 온화한 모습, 적당하게 표현된 신체 비율이 바로 그것이다. 봉선사(奉先寺)주존불인 노사나대불(盧舍那大佛)은 석가모니 보신불로서, 높이 17.14m, 머리 높이 4m, 귀길이 1.9m이고, 얼굴은 풍만하고 둥글며 정수리는 물결모양의 상투가 있다 [4]. 양쪽 귀는 길게 아래로 처져 있고, 아래 턱은 둥글며 앞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다. 그리고 동심원형 무늬의 둥글고 조화로우며 편안한 어깨에 닿는 가사를 입고 있었고, 두상은 또렷하고 위엄있게 조각되어 있다. 초승달같이 휘어진



눈썹과 앞을 응시하는 듯한 아름다운 눈, 높고 곧은 콧날, 작은 입, 미소를 머금은 모습은 중국의 전통적인 심미적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당대 용문석굴의 부처, 나한, 보살, 천왕(天王), 역사(力士)등 조각상은 아름다움과 건강의 화신으로 부각되었다. 조각 예술에 반영된 현실 세계에서의 아름다움과 건강의 전형은 예술적 감화력을 통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고 있다. 용문석굴의 보살 형상도 토착화 및 여성화되면서 통통하고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당대에 유행했던 높게 틀어 올린 상투머리, 팔찌, 얇은 베일, 비침이 있는 치마, 비단옷, 부드러운 색감 등으로 대중들에게 친근감을 주었다.

당대 보살상은 세속의 인물을 표본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귀족 여성 모델은 대중에게 인기가 있었고 널리 인정받았다. 불교세계를 토착화한 표현기법은 당시 즐겨 사용하던 예술형식으로 생명력이 강했고 대중들 마음 속 깊이 자리잡아 교화의 기능도 있었다. 위진시대 불상의 조형이 추상적 세계에 대한 미적 감각을 주었다면, 당대의 불상 조형은 생동감, 친근함, 발랄함이 극대화되었으며, 이국적 불교예술의 토착화를 완성하였다.

## 5. 결론

불교 석굴 조각상은 한 시대의 정치와 사상, 그리고 대중들의 욕구와 염원을 반영한 조각 예술의 대표적 발현으로, 당대 용문석굴 또한 동일한 관점에서 당시 현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토착화되었다. 용문석굴은 끊임없는 예술적 변천을 거치면서 서역 불교의 현지 토착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래 불교의 단순한 축적과 수동적인 계승이 아닌 중화민족의 전통문화와 종교, 사상, 정치 그리고 대중들의 새로운 생활에 대한 추구하고 혁신을 보여주었고 특히 중국 불교가 인도 불교와 구별되는 상징성을 보여주었다. 용문석굴의 형성과 기원, 발전, 확립 과정은 당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통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서,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고 뿌리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발전과정 속에서 당대 지도층들이 불교를 매개체로 대중들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함에 따라, 용문석굴 불교 조각상들의 표현양식 또한 여러 왕조를 걸치면서 폭넓게 다양화되었다.

당대 용문석굴의 토착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고 사실주의 기법이 적용된 정교함과 풍만함이 가득한 석굴 조각예술은 대중의 염원을 기탁할 수 있는 신격화 대상이 되었다.

둘째, 당대는 실크로드를 통한 경제적 번영을 토대로 중외 문화의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불교예술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대중들의 서방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안정적이고 친화적인 혁신정신이 투입되면서 기존 부처님의 이미지와는 달리 인격적으로 변모되었다.

셋째, 당대 용문석굴의 건강하고 풍만한 이미지는 당시 풍습과 시대상, 아름다움과 건강에 대한 소망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또한 지도층들이 석굴조각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노력으로서 당대 문화의 토착화 과정에서 나온 전략적인 결과물이다.

## References

- [1] B. H. Yi, Comparison of Longmen Caves Guyangdong and Golgul Caves, The Art History Journal, (2020), No.54, pp.47-66.

- [2] H. S. Jung,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Ideology of the Northern Wei and Longmen Guyang Cave Represented in the Documents,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2006), No.35, pp.273-302.  
UCI: G704-000060.2006..35.010
- [3] M. W. Mo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tus Belief in Early Caves Built in China - in Northern Wei Period, *The Korean Society for Seon Studies*, (2012), No.31, pp.257-291.  
UCI: G704-001708.2012..31.002
- [4] Y. H. Yin, O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ization and Folklore of Fengxian Temple Stone Carving in Longmen Grottoes and Its Unique Artistic Attraction, *Shenzhou·Later Edition*, (2018), No.10, pp.113-115.  
Available from: <https://m.fx361.com/news/2018/1110/4497071.html>
- [5] L. Li. The Evolution of the Avalokiteśvara Statues in the Longmen Grottoes During the Tang Dynasty: According to the Statues with Clear Dates, *Association of Asian Art History*, (2018), Vol.6, pp.44-90.  
UCI: I410-ECN-0102-2018-600-004271257
- [6] Y. Y. Tan, Study on the North- Tang Dynasty, Tang Dynasty, Tang Dynasty, Wooseok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21)
- [7] Y. K. Lee, K. S. Park, S. S. Lee, A Comparative Study on the Fundamental History and a Characteristic of a space between Yungang grottoes and Longmen grottoes, *The Society of Korean Thought And Culture*, (2008), No.44, pp.379-400.  
UCI: G704-000697.2008..44.004
- [8] D. Y. Cheon, J. N. Kim, L. Zheng, A Study on Relief-Stupa in Longmen Grottoes,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2011), Vol.21, No.1, pp.41-60.  
UCI: G704-000749.2011.20.1.007
- [9] T. M. Choi, The process of sinicization of Chinese Buddhist carvings in Longmen Grottoes, *Dongak Art History*, (2000), Vol.1, pp.239-245.
- [10] W. J. Zhu, The Localization Evolution of Buddhist Niches in Ancient China and Its Combination with the Tradition of National Plastic Arts, *Journal of Suzho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al Science Edition)*, (2014), Vol.4, pp.97-100.  
Available from: <http://www.yidu.edu.cn/103240/detail/article/5777ee07ede4fe1a92800daa.html?q=apdl&org=103240&uorg=999999>
- [11] N. Q. Zhang, A Study of Aesthetic Meanings and Humanization of Chinese Buddhist Grotto Sculp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7)
- [12] N. Q. Zhang, J. W. Ko, The Creation of Maiji Mountain Grottoes and the Value of Buddhist Art, *Institute of Human Sciences*, (2017), No.52, pp.483-503.  
UCI: G704-SER000001626.2017..52.009
- [13] M. X. Zou, Fengxian Temple Statue Niche Grotto Art: On the Secularity of Buddhist Portrait in Tang Dynasty, *Tang Du Journal*, (2009), Vol.25, No.1, pp.50-51.  
Available from: <https://www.doc88.com/p-4711934472747.html>
- [14] Textbook Compilation Group, *Chinese Art History and Works Appreciation*, Higher Education Press, (1997)
- [15] L. Zhou, Fengxian Temple, A Study on the Art of the Great Buddha of Lushana, *Popular Literature and Art*, (2013), Vol.10, p.128.  
Available from: [https://wenku.baidu.com/view/6389ca20a417866fb84a8eff.html?\\_wks\\_=1693417126766](https://wenku.baidu.com/view/6389ca20a417866fb84a8eff.html?_wks_=1693417126766)